

취업한파에 '묻지마 구직' 늘어

인사담당자 59.5%가 '증가세'라고 답해... 길게 보면 양측 모두 손해

취업한파에 '일단 어디라도 넣고 보자'는 마음으로 이른바 묻지마 지원을 하는 구직자들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인사담당자 464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채용 시 묻지마 지원자 증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9.5%가 '증가세'라고 답해 '감소세'라는 답변(6%)의 1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 없다'는 응답은 34.5%였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소기업(60.1%), 중견기업(58.1%), 대기업(50%)의 순으로 묻지마 지원자가 증가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전체 지원자 중 묻지마 지원자의 비율은 평균 41%로 집계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30%' (23.1%), '50%' (15.3%), '20%' (14.2%), '40%' (11.2%), '10% 이하' (11.2%) 등의 순이었다.

그렇다면, 구직자가 묻지마 지원을 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기업정보를 잘 모름' (39.2%,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지원분야를 잘못 기재' (39%), '자소서, 면접 태도 등이 성의 없음' (34.9%), '기업명 잘못 기재' (34.7%), '지원직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 (34.3%), '어느 기업에 내도 무방한 자기소개서' (34.1%), '직무와 관계 없는 스펙 기재' (27.2%), '인적성 등 다음 채용단계에 불참' (12.1%) 등을 들었다.

묻지마 지원자는 대부분 '서류전형' (85.8%, 복수응답)에서 판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실무 면접 전형' (27.2%), '입원 면접 전형' (4.3%), '인적성 전형' (2.4%)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묻지마 지원자들로 인해 입은 피해로 '서류검토 업무 증가' (63.6%,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면접 불참자 발생' (53.9%), '합격 후 미출근' (31.3%), '조기퇴사' (26.1%), '지원자 수 증가로 채용 일정 차질' (13.4%) 등의 응답

이 이어졌다.

묻지마 지원자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은 87.5%였고, 그 방법으로는 '자격조건 세부 공지' (54.4%,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류전형 필터링 도입' (39.2%), '기존 묻지마 지원 이력 체크 및 반영' (29.3%), '자격조건 강화' (17.2%), '지원 시 포트폴리오 등 자료 요구' (7.6%) 등의 답변이 있었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묻지마 지원은 기업 입장에서도 시간, 비용 낭비로 인한 피해가 크지만, 구직자 역시 시간낭비는 물론 잦은 탈락으로 인한 자존감 하락으로 취업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한, 설령 입사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조기퇴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양측 모두에게 손해가 크다"며, "조급함에 무작정 지원하기 보다는 오래도록 근무하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곳인지를 신중하게 따져보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화려한 워킹 12일 서울 여의도 IFC몰에서 열린 'IFC몰 패션위크' 기념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화려한 워킹을 선보이고 있다.

휴비스, 희망키움 물품지원 전달식

전교생이 50명이 되지않아 기본시설 낙후 도움 절실

휴비스는 올해도 어김없이 교육 및 복지 환경이 낙후된 전북지역 초등학교 8곳을 선정해 도서 및 물품 구입을 지원하는 '희망키움 물품지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도내 8개 초등학교는 군산내흥초등학교(군산), 신시도초등학교(군산), 적상초등학교(무주), 계화초등학교(부안), 다송초등학교(익산), 왕궁초등학교(익산), 운안초등학교(임실), 계남초등학교(장수) 등이다.

선정된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50명이 채 되지 않은 작은 학교들로 부족한 방수장비로 학예회, 졸업식 등 교내 행사에 어려움이 많거나 과학실, 보건실 등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등 기본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다.

올해 선정된 다송 초등학교의 박

순진 교장은 "교실 한칸을 확충하기 위해 다른 비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받게 된 휴비스 지원금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받은 지원금이라 그 금액 이상의 큰 가치를 느낀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휴비스 전주공장 윤희만 공장장은 "휴비스는 모산인 SK케미칼 및 삼양사 때부터 50여년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계승하여 소외 받은 어린이 및 어르신들,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휴비스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희망키움 도시락' 6개교, '희망키움 교실' 2개교, '희망키움 물품지원' 8개교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신광영기자

전북테크노파크, 농업용 로봇 수요처 선정

'농업용 방제드론' 과 'TMR사료 급이로봇' 무상 사용 가능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 농업용 로봇의 보급확산을 통한 농업 선진화 기반 마련을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과 로봇 운용을 지원할 농업용 로봇 수요처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정된 수요처는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고산농협, 금안농협, 정읍농협, 익산새마을농협농조합법인(김제), 푸른청매한우영농조합법인(김제), 수완이네농장(정읍), 동리목장(완주), 풍촌목장(고창)으로 총 9개소이다.

이번에 선정된 수요처는 '농업용 방제드론' 과 'TMR사료 급이로봇'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농작업을 할 수 있으며, 로봇을 사용하면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번 농업용 로봇 수요처로부터 생생한 사용후기와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용 로봇의 기술을 한층 높임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농업용 로봇의 보급과 수요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재)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시장 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을 통해 도내 농가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한 전북 농업용 로봇의 보급을 확대하여 농업기술의 선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은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로봇산업의 시장창출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로봇 제품(H/W, S/W, 부품 등)의 사업화 및 관련 서비스를 시장 수요자 대상으로 검증하고 보급하는 사업이다. /신광영 기자

전통시장 평균매출액 18.5% 올라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로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한 전통시장의 평균매출액이 18.5% 증가했다.

12일 중기청은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 시장 설문조사결과, 64.4% 시장의 매출이 증가했으며 평균 매출액 및 평균 고객수도 각각 18.5%,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규모 특별할인기간(9월29일~10월9일) 행사 참여시장 266개 중 50개 시장의 상인 및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뉴시스

전통시장 상인 대상 조사결과,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한 시장은 64.4%이며, 평균매출액은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이용 고객 대상 조사결과, 평균구매액은 4만7000원이며, 품목별로는 농산물(31.1%)을 가장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앞으로도 지역·테마 축제 등과 연계해 개최되는 139개 시장의 매출 증대와 고객유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12개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개별 시장별 점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뉴시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무역실무 설명회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FTA활용지원센터는 오는 21일 도내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 지원을 위해 FTA활용을 위한 중국 시장 진출전략 및 무역실무 설명회를 개최 한다.

중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도내 업체 대표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국에 관련된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무역실무 정보 및 중국의 유망시장 현황과 진출전략'에 대해 중국 전문 강사와 함께 진행 될 예정이다.

첫 번째 강의는 중국의 유망시장의 현황과 중국 진출전략, 중국 소비자들의 최신 동향에 관해 다양한 분야의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두 번째 강의는 중국에 관련된 단계별 무역실무와 업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 작성법에 관한 강의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마련된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 수출 과정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 중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무역 실무를 다루게 되어 이

제 막 중국으로 수출을 꿈꾸는 예비수출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도내 중소기업이 FTA 전문가 컨설팅과 중국 현지 센터 등 지원 사업을 활용해 전국의 좋은 제품들을 수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도내 업체들의 FTA 활용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FTA활용지원센터(063-711-2046)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신광영 기자

농어촌공 무진장지사, 효율적인 물관리로 재해예방 제로 도전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는 관내 5,319ha의 농경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물관리가 가능하도록 저수지 및 양수장을 점검, 정비해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했다. 2016년 잦은 강우 및 국지성호우 등으로 인하여 급·배수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 7월 6일 집중호우(150mm)에도 장계지구인 오동간선 수로봉고등 농경지 및 주택 등 많은 침수 예상되었으나 피해를 최소화했다.

장남지구는 농업용수자동화시스템(TM/TC)의 도입으로 지사 및 현장 운영체계가 재해 없는 안정농으로 농업인에게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인기 유튜버 잡아라" 유통업체와 협업 열풍

대형 유통업체 다수가 인기 유튜버들과의 협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과거에는 유명 모델을 필두로 제품을 노출시키는 것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했다면 이제는 1인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이 매출 향상에 특효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현재 뷰티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피현정과 함께 성분·제형·가격 등이 우수한 화장품을 모아 검증하는 '착한성분 화장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피현정이 선정한 '가장 좋은 제품', '합격' 수준의 상품을 11번가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립밤 등 추가 증정품을 제공하는 혜택도 있다. 지난 9일까지 진행된 첫 번째 프로젝트 '가을 립스틱' 편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나타났다. 유튜버를 통해 피현정을 알고 있던 소비자들이 소식을 듣고 11번가를 찾아왔다는 설명이다.

(마켓에서도 최근 뷰티 유튜버, 게임 유튜버 등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이 효과를 보고 있다.

G마켓은 지난 2월 '유튜브 스타 쇼핑 이벤트를 되다' 프로젝트를 통해, 인기 유튜버 각자의 유튜브 채널에 G마켓 상품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공개한 바 있다.

게임, 뷰티, 푸드 등 각 카테고리 별 인기 유튜버들은 각자의 개성과 스토리를 적극 반영해 상품을 소개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